

제목: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

본문: 행 5:12-16

시작찬송가: 93(통93), 70(통79), 313(통352)

헌금찬송가: 88(통88), 321(통351), 80(통101)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말로써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로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하는데, 14절의 말씀은 그들이 “믿고 주께로 나아왔다”고 전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도 사도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함을 가르쳤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도록 사도들이 가르쳤기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일 수” 있었습니다. (12절) 칭찬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다고 13절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성장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오직 주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왔을 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1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음을 얻습니다.

1.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전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자주 다니시고 거니시던 곳이었습니다.

요10:22-23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의 행각. 162개의 원주를 가진 벽 없는 복도로 성전 동쪽에서 성전입구를 바라본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차례차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가장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 바깥을 이루는 동시에 성전구역을 감싸는 동편 담장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섬김에 있어서조차 자격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을 거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방인과 같이 낮추시고 소외된 사람들, 존중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낮추시고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좇아 자기 시대와 주변의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성도는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 한 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2.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일 때” 교회는 칭송을 받고 또 성장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도 교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던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빌4:2).

성도들은 주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여 주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빌2:2-4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 “오직 주님”의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만”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능력이 되는 주님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의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가는 곳에 나움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6: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막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의 한마디 :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2.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구제역을 그치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4. 3월에 있을 특별새벽집회와 새벽기도 컨퍼런스를 위하여.
5.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명성교회